



HANA
THE NEXT
하나더넥스트

이달의 투자가이드

2025.09



하나더넥스트 이용 안내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라운지 상담예약

QR코드로 하나더넥스트에 접속하시거나
카카오톡채널 '하나더넥스트'를 구독해주세요

하나더넥스트 라운지 상담 예약번호 **1599 - 1478**

하나은행

목차

- 001 이달의 투자가이드 요약
- 002 2025년 9월 주요 시장 이벤트
- 003 2025년 하반기 포트폴리오 비중 제안 예시
- 004 미국주식: 단기 감속, 궤도는 유지
- 005 유럽주식: 느리지만 좋아지고 있다
- 006 일본주식: 정상화 진행 중
- 007 중국주식: 단기 방향성은 추가 부양책이 결정
- 008 한국주식: 새로운 상법 개정안과 수출 증가가 필요
- 009 채 권: 금리는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내려갈 전망
- 010 환 율: 원/달러 환율은 서서히 하락 예상
- 011 금 / 원유: 기존 추세 지속 전망

※ 본 콘텐츠는 경제 및 투자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 배포되는 자료로서 투자를 유도할 목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판단 및 책임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라도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성과가 미래의 투자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본 자료에 제시된 어떠한 예상, 예측 또는 전망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본 콘텐츠 저작권은 하나더넥스트에 있으며, 사전 서면동의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 등이 금지됩니다.

- 미국 주식시장은 고용시장 불확실성도 있고 9~10월 비교적 부진한 계절성도 있어서 단기 속도 조절을 전망합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약간의 가격조정 내지 기간조정 그 이상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 한국 증시는 상법 개정안이 많이 반영되었고 수출 증가가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해 단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합니다. 중국은 경기가 확장국면(물가 상승)에 돌입할 수 있지만 아직 불확실하며 추가 부양책 규모가 작을 것 같아 지금 주가 수준에서 매수는 지양합니다.
- 미국 고용시장이 약해지기 시작했으며 파월 Fed의장의 통화 정책 스탠스에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채 금리 하락을 위해 계속 노력 중입니다. 금리 하락에 무게를 두고 채권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산군별 장단기 투자매력도

단기(~3개월)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새로운 상법 개정안 vs 자사주 소각 의무화만 진행
미국주식	★★	-	양호한 기업이익 증가세 vs 노동시장 둔화 우려
유럽주식	★★	-	방산, 금융 등에 적극 재정 지원 vs 제조업 회복 부진
일본주식	★★	↓	내수 호조 vs 미국 금리인하 시 엔화 강세 우려
중국주식	★★	-	추가 부양책 vs 높은 밸류에이션
단기채권	★★★	-	안전자산으로 적합하며 예금보다 높은 금리
장기채권	★★★	-	관세 이슈 완화되면 금리 하락 가능성 높음
달러	★★	-	물가 상승 우려 vs 미 정부의 약달러 의지
금	★★	-	금 가격에 유리한 환경 지속 vs 단기 차익 매물
원유	★★	-	손익분기점에 가까운 가격 vs 공급 우위, 중산 지속
장기(6개월~1년)	투자매력도	전월대비	Key idea (긍정요인 vs 부정요인)
한국주식	★★★	↑	새로운 상법 개정안 등장, 수출 증가
미국주식	★★★	-	무역전쟁의 최대 충격은 통과, 계속되는 성장
유럽주식	★★★	-	강력한 재정 확장 정책, 제조업 회복세 지속 전망
일본주식	★★★	-	경제 정상화, 내수 호조, 2026년 기업이익 전망 양호
중국주식	★★★	-	소비자물가 상승, 경기 회복에서 확장 국면 진입
단기채권	★★	-	가격 변동성 낮음 vs 낮은 자본이익
장기채권	★★★	-	물가/경기 둔화되면 장기 금리 내려감
달러	★★	-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 vs 미국 경기 둔화 우려
금	★★★	-	금융완화 & 불확실성 & 주요국 중앙은행 매입
원유	★★	-	2025, 2026년 공급 우위 환경 지속 전망

8월 고용보고서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7만 3천명 증가해 예상 10만명을 하회했습니다. 또한 6월과 5월 비농업고용이 각각 13만명, 12만명씩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경제지표 발표 후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 급등했고, Fed도 고용 하방 위험을 우려한다고 언급했습니다.

9월 FO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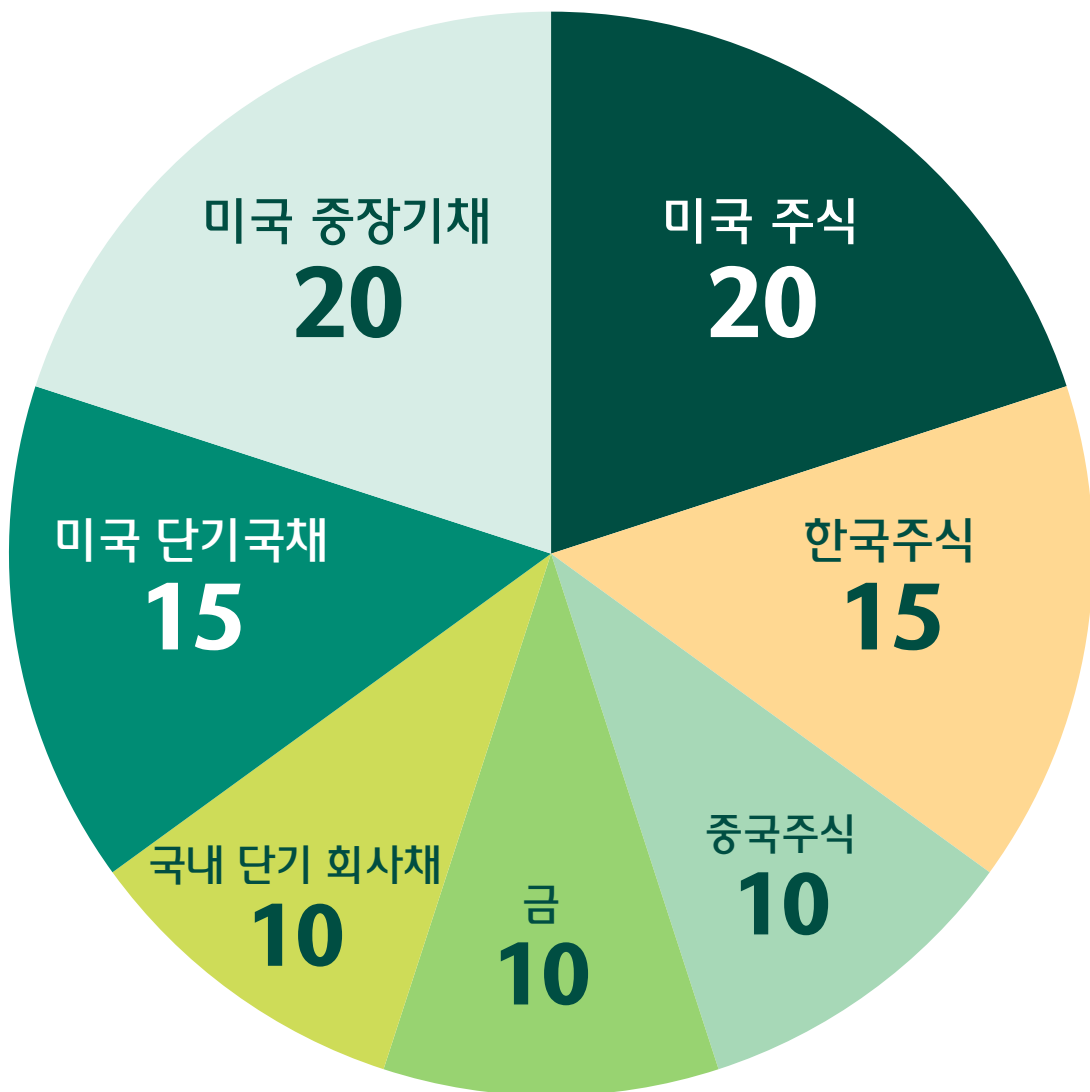
Fedwatch 9월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87% 입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에서 물가와 고용을 고려한 통화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결국 9월에 발표될 고용과 소비자 물가 결과에 따라 FOMC 발표 내용 및 점도표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	화	수	목	금
1 미 휴장 (노동절) 중 8월 차이신 제조업 PMI	한 8월 CPI 미 8월 ISM 제조업지수 유 8월 CPI	한 2Q GDP (잠정) 미 8월 차이신 서비스 PMI 미 연준 베이지북 공개	미 8월 ADP 취업자 변동 미 8월 ISM 서비스업지수 미 8월 S&P 글로벌 PMI	미 8월 고용보고서
8 중 8월 수출입 일 2Q GDP (확정)	중 중국 M2 통화량	미 8월 PPI 미 8월 CPI, PPI 유 ECB 통화정책회의	미 8월 CPI 미 30년 국채 입찰	미 9월 미시간 소비심리 (잠정)
15 일 휴장 (경로의 날) 중 8월 소매판매, 생산자물가지	미 9월 FOMC (~17) 미 8월 소매판매	유 8월 CPI 일 8월 수출입	일 BOJ 금융정책위원회 (~19)	일 8월 CPI
22	일 휴장 (추분절) 미 9월 S&P 글로벌 PMI (잠정)	한 8월 소매판매	미 2Q GDP (확정) 미 S&P 글로벌 종합 PMI	미 8월 PCE 물가 미 9월 미시간 소비심리 (확정)
29 한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중 9월 제조업 PMI			

※ 한: 대한민국, 미: 미국, 일: 일본, 유: 유럽, 중: 중국, 전: 글로벌 전체

- 연초에는 주식보다 채권의 매력을 약간 더 높게 보았으나, 미국 주식이 4월 조정으로 한 차례 매도 물량을 크게 덜어낸 후 상승 궤도로 복귀하였기에, 지금부터 주식과 채권의 투자 매력도는 비슷하다 여겨집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여전히 채권 투자하기에 좋고, 하반기 금리인하에 따른 자본차익도 예상됩니다.
- 2023~2024년은 상승장의 초/중반이었기에 다소 공격적인 접근이 유효했으나, 2025년부터 미국 주식의 기대수익은 좀 낮게 봅니다. 반면, 한국과 중국 주식으로의 포트폴리오 확산이 필요하고, 한국 시장의 모멘텀을 중국보다 조금 더 강하게 봅니다.
- 자산배분 비중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시장 전망을 기반으로 최적의 비중이 도출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제시해 드리는 자산 배분 비중은, 위험에 대한 선호가 중립 수준인 투자자를 가정하고 만든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단위 %)



* 6개월 정도의 유지기간을 가정함

단기 감속 요인

① 계절성

미국 주식시장은 9월과 10월의 평균 수익률(return)과 상승 확률(hit ratio)이 다른 달에 비해 부진한 편입니다. 역사적으로 꽤나 일관되게 나타난 계절성입니다. 기관투자자들의 3~4분기 포트폴리오 전환, 2분기 실적 발표 마무리 이후 기업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 심화 경향,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선거 전 불확실성 등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 감속 요인

② 고용 둔화 우려

8월 초에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는 7월 고용자 수 증가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또한, 5월과 6월 데이터도 대단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왼쪽 그림). 이러한 상황이 단순 해프닝이었는지, 또는 고용시장의 상당한 위축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 감속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성장이 아니면

미국 증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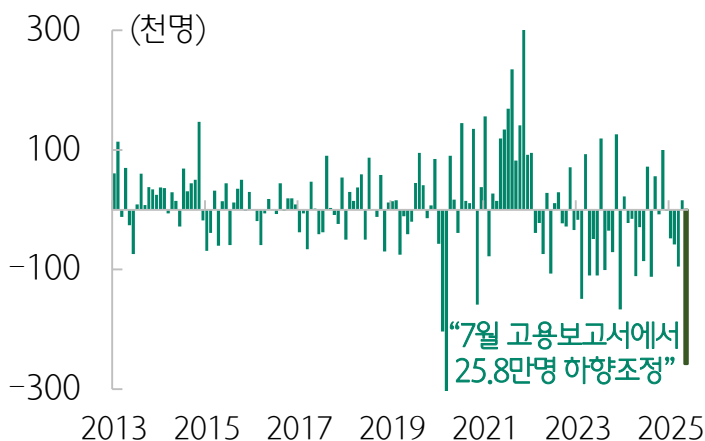
상승 궤도 유지

계절성이란 것은 1~2개월짜리 이슈이고, 게다가 절대적인 부진이 아니라 다른 달과 비교한 ‘상대적’인 부진입니다. 노동시장 둔화 이슈 또한 침체(recession)가 아닌 이상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닙니다. 둔화는 성장률이 낮아지는 문제이고, 역성장이 아니면 미국 증시는 상승 궤도를 유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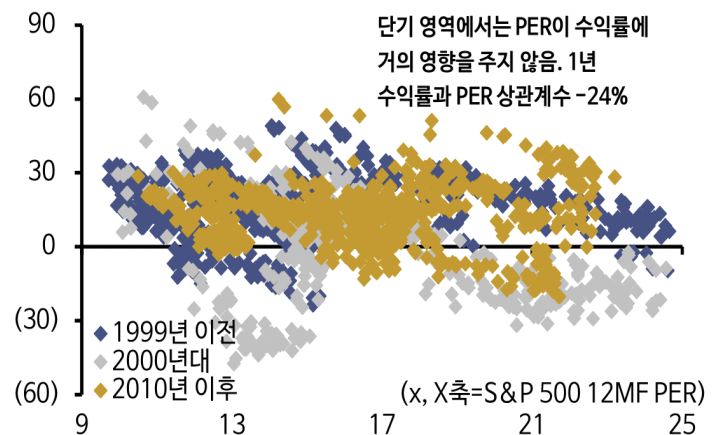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하여

2025년 2분기 기업이익 발표는 거의 모두 마무리됐고 계속 좋습니다. 주요국 대비 높은 성장률과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익 대비 주가 수준(PER)이 높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건 비중 조절 정도로 대응할 문제이고, 더 갈지 못 갈지의 문제는 아닙니다. PER은 시장의 향후 수익률에 대한 설명력이 별로 없습니다(오른쪽 그림).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감의
과거 2개월치 조정분(net revision)]



[S&P500 지수 PER(주가순이익비율)과
향후 1년 수익률의 상관관계]



시장 주도주

① 방산

시장은 대체로 방산과 금융 섹터가 이끌고 있습니다(왼쪽 그림). 독일에서 대규모 재정정책 전환이 있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 군사비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될 러시아의 위협, 미국의 NATO 축소 가능성, 자주 안보 필요성 등으로 유럽 재무장 2030(Rearm Europe 2030)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

② 금융

늘어나는 국방비, 관련 제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은행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유럽투자은행(EIB)은 기존에 무기와 탄약 생산 관련 대출을 금지했지만, 2025년부터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 은행과 협력하여 기업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 섹터의 이익도 빠르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느리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음

유럽 증시의 전체적 상승을 느리게 하는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테크 산업을 지배하는 기업이 비교적 많지 않고, 여러 국가의 정책 스탠스가 다르고, 동유럽에서 아직 전쟁 중이라 에너지 조달에 영향이 있고, 중국과의 교역도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느리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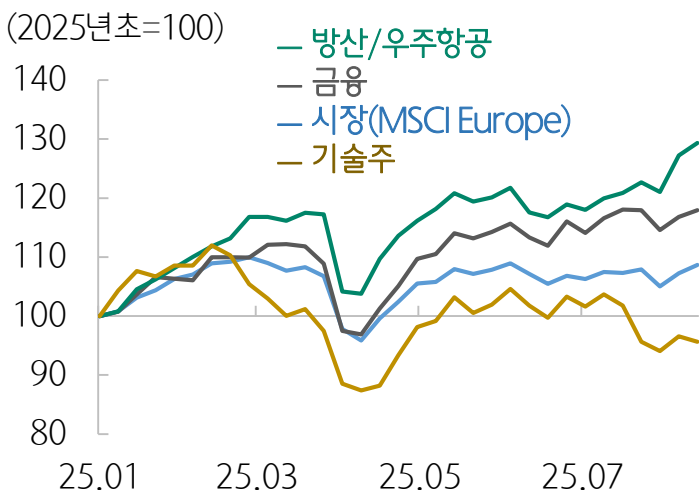
이익 전망은

무난하게

달성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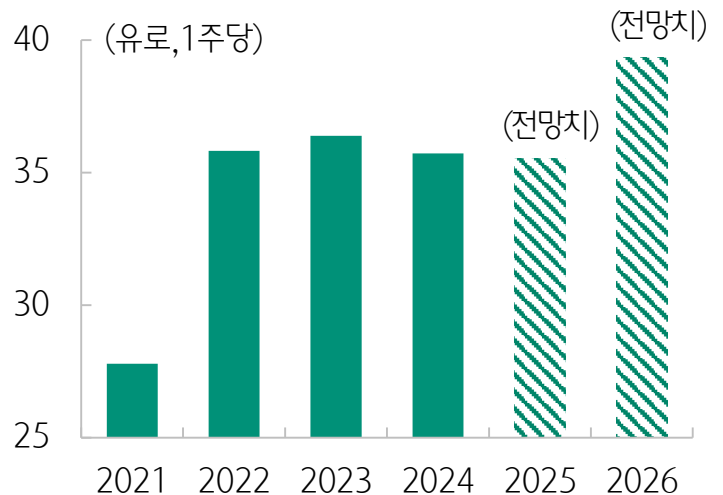
조금 더 길게 보면 발목 잡는 요인들은 점차 해결되고, 확장 재정 정책의 영향은 방산과 금융 외의 다른 섹터로 확산될 것입니다. 시장 전체의 기업이익 전망치도 다시 상향조정될 것이며, 2026년의 이익 성장률 전망치(전년대비 10% 정도 증가)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오른쪽 그림).

[STOX600 분기별 주당순이익]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STOX600 연도별 주당순이익(EPS)]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이익의 정상화

7월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 타결로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슈는 완벽하진 않지만 일단락됐고, 일본 기업이익 전망치는 하향조정을 멈추고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습니다(왼쪽 그림). 협상 타결 후 한달 간 일본은 미국, 유럽에 비해 기업이익 상향조정 속도가 빨랐습니다.

성장의 정상화

이렇게 기업이익 전망치의 상향조정 흐름이 재개되며, 2026년 이익 전망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졌고, 주식시장은 2025년 하반기~2026년 상반기 사이에 이를 반영할 것입니다. 지난 달 Nikkei225 지수가 역사적 고점인 41,000pt 대를 넘어서면서 실제로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경제의 정상화

조금 들여다보면 수출 관련 섹터의 이익 전망은 하향조정을 멈춘 정도이고, 빠르게 상향조정되고 있는 쪽은 내수 관련 섹터입니다. 내수 경제 관련 항목들이 나쁘지 않고, 2025년 임금 협상(춘투) 결과(전년비 5.46% 인상)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어서 경제 정상화 흐름은 계속될 듯 합니다(오른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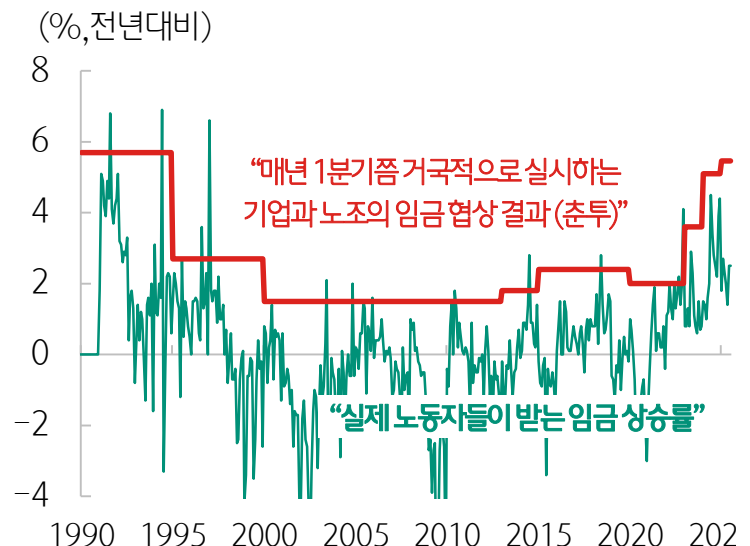
엔화 강세 가능성 은 단기 리스크

다만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점은 엔화 강세 요인이고, 중시 하락 요인입니다. 단, 추세 전환 요인이 아닌 단기 변동성 요인입니다. 일본 증시와 엔화의 역상관관계는 수출을 연결고리로 하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더 주목하고 있는 건 국내 이슈이고 2026년 기업이익 성장도 내수 관련 섹터에 좀 더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MSCI Japan 12개월 예상 순이익 (EPS)]



[일본 임금 상승률]



딥시크 발언으로 AI 반도체주 재평가

8월 A주(본토)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유는 딥시크 새 모델 출시 및 자국 반도체 사용 언급,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추가 부양책입니다.

딥시크는 1월 R1에 이어 8월 차기모델 V3.1을 공개했습니다. R1 대비 V3.1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못했지만, 딥시크가 중국산 칩에 맞춰 설계했다고 언급해 중국 AI 반도체 관련주 Cambricon, Hygon IT 등이 급등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부양책으로 상승하던 상해종합지수는 해당 소식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상무회의에서 리창 총리가 추가 이구환신 정책으로 체육 소비와 서비스 소비를 논의하며 관련주도 상승했습니다.

Nvidia의 중국 AI 시장 점유율은 과거 70% 이상이었지만 국산칩 비중이 증가해 50%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2026년 Cambricon PER 240배, Hygon IT PER 97배를 고려하면 Nvidia를 대체하여 증가하는 실적을 주가가 상당부분 반영했습니다. AI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본토에 상장되어 있어 H주(홍콩)는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매수 지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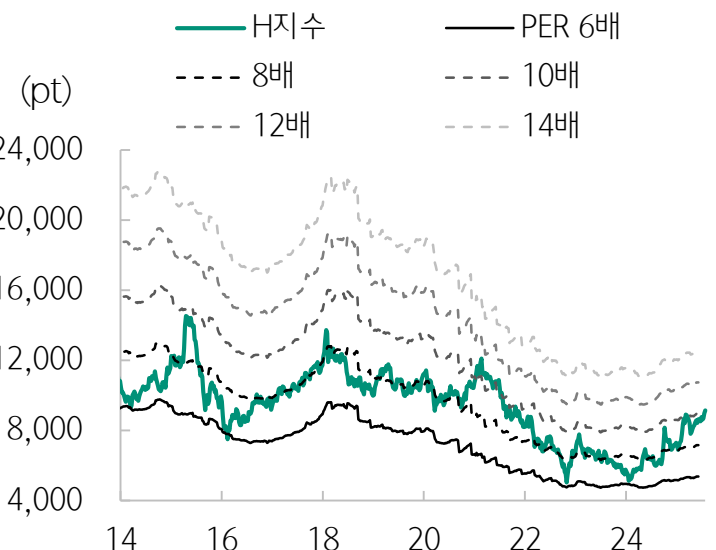
경제 데이터는 최근 조금 부진합니다. 소비, 생산, 투자가 소폭 하락했고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부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부양책 규모가 크면 중시가 더 상승하겠지만 경기가 작년처럼 부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번 부양책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주가 밸류에이션도 높기 때문에 지금 주가 수준에서 단기 관점의 매수는 지양합니다.

[CSI300 지수 IT 산업 주가와 EPS]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H지수 12개월 선행 PER 밴드]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2차 개정안 통과 3차 개정안 예정

2차 상법 개정안이 8월 25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수를 2인으로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은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3차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확실시되는 분위기이며 최대주주 의결권 3%를 보안, 지배구조 개선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8년내 최고

7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11.4를 기록하며 21년 수준을 상회,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상승, 소비 부양책 등으로 내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상법 개정안과 내수 호조는 주가가 많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는 법/제도 개선에 이어 그것이 의도한 변화들을 확인하며 상승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2,900~3,300pt 밴드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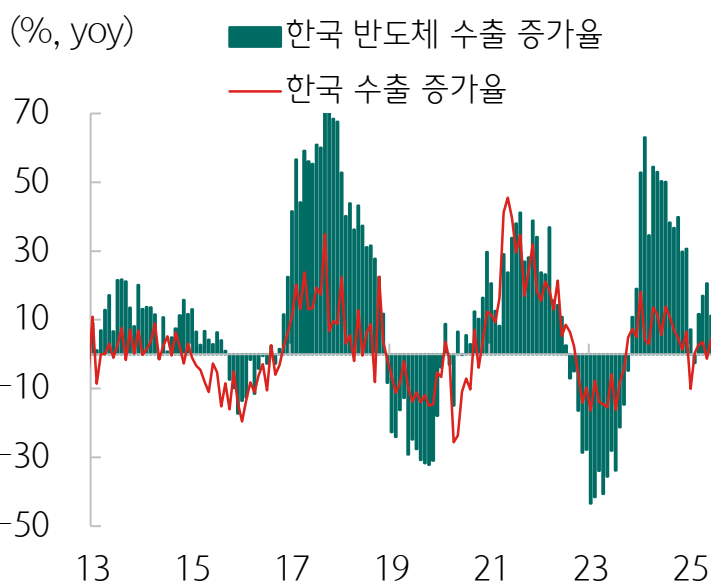
상법 개정안과 별개로 수출이 증가하면 코스피가 다시한번 상승할 전망입니다. 예상을 상회한 AI 수요, 메모리와 탄산리튬 가격이 상승해 반도체와 2차전지 주가가 저점에서 상승했지만 실제 글로벌 수요가 회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코스피 2,900~3,300pt 밴드 유지하며 단기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하향하고 장기 투자 의견을 상향합니다.

[한국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한국 수출과 반도체 수출 증가율]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미국채 금리 지루한 흐름

시장 금리는 물가와 고용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고용시장이 좋고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가 크다 보니 미국채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트럼프와 파월 Fed의장 간 갈등으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기대도 낮았습니다.

변화의 시작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고용 지표가 나빠지고 물가는 아직 안정적인 모습이어서 긴축 정책을 고집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트럼프의 연준 압박도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모기지 계약 사기 의혹이 제기된 리사 쿡 연준 이사를 해임했으며, 차기 연준 의장을 미리 뽑으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Fed는 결국 완화적인 스탠스로 전환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미 8월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에 그런 모습이 살짝 엿보였습니다.

금리 하락 가능성 높음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금리 하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SLR 규제 완화 같이 미국채 수요를 자극하는 수단도 만지작대고 있습니다. ‘정부에 맞서지 마라’ 는 투자 격언이 있죠. 미국채 금리 하락에 무게를 두고 채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국내 중장기 금리 하락을 예상하는 이유

한편, 국내 금리는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량 증가 부담, 2026년 예산안이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본 및 미국의 장기 금리 상승에 연동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세가지 이유로 국내 중장기 금리는 연말로 갈수록 점차 하락하리라 예상됩니다.

- ① 내년 예산안 확정 후 2026년 국채 발행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면서 금리가 하락할 것입니다.
- ② 최근 보험사들이 초장기물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연말에 금융당국이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나면 보험사들의 장기채 수요는 재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 ③ 10월 초 발표하는 WGBI의 반기 리뷰에서 한국 국채의 편입이 2026년 4월부터 시작된다는 점이 확실해지면, 보험사들의 중장기 국채에 대한 매수 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중장기 금리가 상승할 때 미리 투자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락하던 달러인덱스는 숨고르기 중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한다면 환율은 다시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환율은 달러인덱스와 엔/달러, 위안/달러, 그리고 한미 금리차 및 경상 수지 등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 달러인덱스인데, 연초 이후 강하게 떨어지던 달러 인덱스가 잠시 숨고르기 중입니다. 작년에 킹달러라 불릴 정도로 달러인덱스가 크게 올랐었으므로 올해의 하락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제조업과 수출 회복을 위해 달러 가치 하락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여 한국 금리와 차이가 더 좁혀진다면 원/달러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왼쪽 그림).

원화는 위안화 영향 크게 받음

원화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국 위안화도 절상 압력이 높습니다. 중국은 지난 수년간 과잉 공급에 시달려 왔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비 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GDP를 보면 기업 투자 비중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가계 소비 비중은 늘어나고 있죠. 한 나라의 경제에서 소비 비중이 커지려면 그 나라의 돈 가치가 올라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관세 공격에 대응하여 위안화 가치를 14%나 평가절하했으나, 지금은 더 큰 관세를 때려 맞고도 절하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소폭 절상했죠(오른쪽 그림). 우리나라는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위안화 가치와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미 금리차 및 원/달러 환율]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위안/달러 환율 및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단기 감속 요인은 차익 실현과 가상자산

금 가격은 4개월 동안 횡보 중이고 차익 매물 소화 중인 것 같습니다. 1년 전 가격에 비해 아직도 30% 이상 높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은 더 있다고 봅니다. 일관되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나 시중 유동성이 가상자산으로 이동 시 금 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왼쪽 그림).

환경은 여전히 금 가격을 지지

금은 가치 평가로 상승 여력을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환경이 금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중장기 상승 추세 지속 전망합니다. 달러 자산 리스크를 헤지하려고 하는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지속, 실질금리(금리-물가) 하락 가능성 등이 이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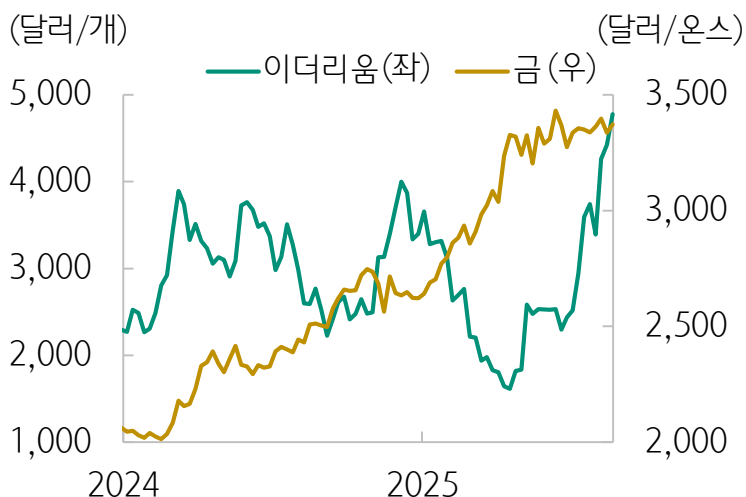
미국 EIA 유가 전망 큰 폭 하향

8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유가 전망 보고서는 2025년 말과 2026년 말 국제유가 전망을 크게 하향조정했습니다. 2025년 말 50달러 대까지 떨어지고 2026년에 40달러 대에 진입하는 것을 기본 시나리오로 제시했습니다(오른쪽 그림). 원유 재고 수준의 상향조정, OPEC+ 국가들의 증산 기간 연장이 근거입니다.

균형 가격 수준은 배럴당 50~70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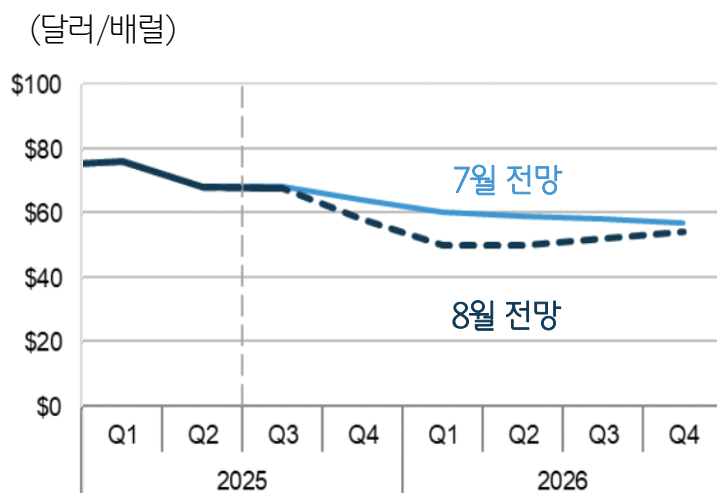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계속 시원치 않으니 수요가 특별히 늘지 않고, 산유국들은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고 있으니 유가는 기본적으로 하방 압력이 우세합니다. 산유국의 손익분기점은 50~70달러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니 70달러에 근접한 지금 가격에서는 하락 베팅이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최근 2년 이더리움 가격과 금 가격]



자료 : Bloomberg, 하나더넥스트전략부 리서치팀
기준 : 2025년 8월말

[미국 에너지정보청의 유가 전망 변화]



자료 : 미국 에너지정보청 8월 유가 전망 보고서 인용

※ CC브랜드 250829-0672